

단원 개관

이 단원은 비판 및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상식과 선입견을 깬, 역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선정된 벨라스케스에 대한 글을 읽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에 관한 감상문을 쓰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또 그림을 감상하면서 소통과 치유의 힘을 느끼는 활동을 통해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르게 하였다.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하는 포인트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역사상 최고의 그림은 무엇인가」를 제재로 선정하였으며, 미술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쓸 수 있다.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읽기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쓰기	[6국03-03]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알맞은 형식과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6국03-05]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6국03-06]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문법	[6국04-01]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교수·학습 내용

수업 과정		교수·학습 내용
도입	생각 열기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감상하기
전개	학습 활동 1	「역사상 최고의 그림은 무엇인가」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학습 활동 2	그림 「시녀들」을 보고 새롭게 보이는 것 쓰기
	학습 활동 3	벨라스케스의 「세바스티안 데 모라의 초상」을 관찰하고 감상문 쓰기
	학습 활동 4	「그림의 힘」을 느끼며 그림 감상하기
	학습 활동 5	클레의 「세네치오」를 보고 감상문 쓰기
정리	배움 다지기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 쓰기

핵심 역량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이다.

지도상의 유의점

- 이 단원에서는 미술 작품 표현이나 기법보다 그림 속에 있는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림 이면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 학생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그림 감상문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한다.

도입

▶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감상하기

- 벨라스케스에 관해 알아본다.
 - 벨라스케스(Velázquez, Diego Rodríguez de Silva, 1599~1660): 에스파냐의 화가이다. 시각적 인상을 강조하였다.
 - 작품: 「야곱에게 보내진 요셉의 피 묻은 외투」, 「시녀들」 등
-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감상해 본다.
 -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으로 한눈에 그림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섬세하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 재미있다.



Tip

• 그림을 먼저 보여 주고 관찰하게 한 다음 제목을 알아맞혀 보는 활동을 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좋다. 제목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배경인지 등 그림을 통해 다양한 상상을 펼치도록 한다.

전개

1 「역사상 최고의 그림은 무엇인가」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 역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선정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벨라스케스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화가였기 때문이다.
- 벨라스케스가 가진 탁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 빠른 솜씨로 그리되,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이다.
- 「시녀들」이 역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상식과 선입견을 깨고 빛과 색을 포착하여 자신이 본 대로 재현했기 때문이다.

2 그림 「시녀들」을 보고 새롭게 보이는 것 쓰기

- 그림 「시녀들」을 보고 새롭게 보이는 것을 써 본다.
 - 오른쪽 문 입구에서 서 있는 남자가 보인다. 무엇인가를 전하러 오거나, 왕이나 왕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종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이곳의 분위기를 보고 말을 할까말까 망설이는 것 같다.

3 벨라스케스의 「세바스티안 데 모라의 초상」을 관찰하고 감상문 쓰기

- 벨라스케스의 「세바스티안 데 모라의 초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써 본다.
 - 몸집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작아서 난쟁이라고 불리지만 얼굴은 진지한 어른의 모습이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아서 자신의 당당함을 표현하고 있다. 벨라스케스는 난쟁이라고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장점을 드러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4 「그림의 힘」을 느끼며 그림 감상하기

- 화가 풀리게 하는 빨간색의 힘을 생각하며 마티스의 「붉은 색의 조화」를 감상한다.
- 긴장을 풀어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노란색의 힘을 생각하며 고갱의 「기도하는 브르타뉴의 여인」을 감상한다.

5 클레의 「세네치오」를 보고 감상문 쓰기

- 클레의 「세네치오」를 보고 내가 느낀 그대로 감상문을 써 본다.
 - 화가 닳을 때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주는 주황의 힘: 가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그런 나를 이해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느낌이 든다. 이런 눈으로, 저런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재미있게 웃음을 주면서 감싸주는 것 같다.

정리 및 평가

1 정리하기

-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쓴다.

2 평가하기

-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썼나요?

평가 기준	
상	그림을 다양한 시각에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섬세하게 쓸 수 있다.
중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쓸 수 있다.
하	그림을 관찰하고 감상문을 쓸 수 있다.